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박차

60세대 규모 면단위 청년문화공간 대폭 확충
'청년이 살고 싶은 해남 만들기' 역점과제 추진

해남군이 '청년이 살고 싶은 해남', '청년이 행복한 해남'을 만들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4일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면 단위에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건의된 사항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의 안정적 거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민선 8기 역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 151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전남도내 최대 금액인 90억6천만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사업비로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남읍 구교리에 건립 예정인 청년공공임대주택은 공급면적 62.6-96.3㎡ 규모 60세대다.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면 단위 청년문화공간인 두드림하우스도 조성된다. 두드림하우스는 각 면 단위 청년회 또는 청년 단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청년두드림센터가 소재한 해남읍을 제외한 13개 면에 각 1개소 씩 들어선다.

두드림하우스는 청년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문화·여가 활동 공간으로 군에서도 청년 관련 사업과 정책 공모사업을 지원해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군정 참여를 제고할 예정이다.

두드림하우스는 농촌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사무실과 카페, 목공소 등의 운영 계획을 갖고 마을에도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청년 취·창업 지원과 문화여가활동 거점인 청년두드림센터를 개관한 데 이어,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해남 만의 차별화된 정책들을 적극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8월 개관한 해남청년두드림센터는 지금까지 1천여명의 청년들이 청년정책 상담 문의, 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해 이용해 왔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두드림 프로그램 19개 강좌를 운영, 17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취미·여가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전남도 주거 지원 사업 외에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이 빈집을 주거 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과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창업공간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선 7기 동안 청년의 창업교육, 창업지원금 지급 등 1천709명이 취·창업 지원을 받았고 청년형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918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군은 관련 국·도비 62억9천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청년정책에 투입했다.

명현관 군수는 "청년들을 위해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최우선으로 민선 8기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이 돌아오는 해남, 머무르고 싶은 해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과감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문화도시센터

지역문화 전문가 육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 '문화갯물학교' 교육생 140명 모집

목포시가 문화도시사업 현장에서 뛸 지역문화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

목포시는 4일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해 민선 8기 박홍률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2028년 문화예술 엑스포 개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문화도시센터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문화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갯물학교 교육생 140명을 모집한다.

'문화갯물학교'는 지역 자원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기획자 양성 ▲문화큐레이터 양성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미디어크리에이터 양성 ▲심화 과정 총 5개 양성 과정으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운영, 전시 기획 등에 대한 교육을 주 1회 6-10주 과정으로 목포문화원 다목적실(4층), 만인계웰컴센터(3층)에서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50세 이하 목포·무안·신안 지역 주민이며 목포 문화와 지역 콘텐츠 발굴에 관심있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목포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1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1-802-1017)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호 목포문화도시센터장은 "문화갯물학교를 통해 양성된 전문 인력이 수료 후에도 지역 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목포 문화 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목포시와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함평군, 무화과 수확 분주 최근 함평군에서 무화과 수확이 한창이다. 함평 무화과는 시설하우스에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돼 믿고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당도와 풍부한 식이섬유로 여름철 대표 과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함평군에서는 40여 농가가 22ha 규모의 시설하우스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납품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신안군, 흑산도항 양식시설 본격 철거

항구 기능 개선·청정어항 조성 도모

신안군이 흑산도항 내 양식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철거에 나섰다. 〈사진〉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서남해권의 영해 관리를 위한 전략적 요충 항만인 흑산도항 항만시설 개선으로 영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항 주변 순환형 관광여건 정착을 위해 2013년 국가관리연안항 항만기본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67호)에 반영돼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흑산도항 내 일부 수면에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27년 동안 양식업권(전복, 다시마)을 기반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국가어항 지정, 흑산도항 개발사업으로 인해 양식행위가 '항만법' 제28조(금지행위) 규정으로 양식업 기반이 오는 2025년까지 제한돼 있어 어업권의 소멸위기로 생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군은 장기 민원인 흑산항 내 양식시설물 철거와 관련해 조건부 협의로 승인받은 해당 어촌계(진리1구, 진리2구) 어업권 총 12.8ha(축구장 18개 면적)를 대상으로 대체 양식업권 개발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다.

어업 종사자와 수차례 면담과 협의를 통해 양식업 손실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양식시설 매입 조건으로 21어가, 양식가두리 964칸을 총 14억원(전액 군비)으로 2년 간 분할 지급키로 했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군과 어업 종사자 간 원만한 협의로 그동안 주춤했던 흑산도항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아 조속히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흑산도항 개발사업 조기 완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영광교육청, 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

'방학중 나의 학습전략 탐색'

영광교육지원청은 최근 3일 간 중학교 2학년 희망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학생 학습코칭 '방학중 나의 학습전략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자유학년제를 지낸 학생들이 자신의 학력에 대한 역량과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MLST-Ⅱ 학습전략 검사를 기반 프로그램과 국어, 영어, 수학의 교과학습으로 구성·운영했다.

청소년 학습전략검사 기반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 높이기 ▲학습동기 향상 ▲학습습관 증진 등 소주제로 구성됐다.

국·영·수 교과수업은 각 교과 교육과정 연계성과 학력·진학·진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교과 별 학습전략을 바탕으로 1학기 내용을 완전학습이 될 수 있도록 재정리한 뒤 개별 피드백을 제공했다.

김춘곤 영광교육장은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가정·학교·지역 네트워크가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무안경찰, 오룡초교 후문 산책로 환경 개선

무안경찰서가 신도시지원단과 협의해 예산 1천900만원을 확보, 오룡초등학교 뒤편 공원 산책로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사진〉

오룡초등학교 공원 산책로는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민원 제기가 잇따르고 조명시설이 부족해 야간 산책 시 불안감을 느낀다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 많았다.

이에 따라 무안경찰서는 산책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고 야간 시인성을 강화하는 볼라드등(잔디등)을 설치했다.

박삼현 무안경찰서장은 "공원 산책로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공동체 치안을 통한 범죄 없는 안전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상무지구(상가매매)

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융 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 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당진(신축)원룸매매

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융7억)

▶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